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대체

여수·광양항만공사 8월 출범

광양만권 총괄 운영... 여수시의회·사회단체선 반대

2년여간 우려곡절을 겪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오는 8월 19일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 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 통과 이후 5월 29일 공포됨으로써 컨공단을 대체하고 광양만권 항만들을 총괄 운영하는 항만공사의 설립을 본격화 한다.

'컨 공단폐지 법률안'은 컨테이너부두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하고 항만공사(PA)를 설립해 여수항과 광양항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

안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면 광양과 여수에 있는 모든 항만에 대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게 된다.

부산(2004년), 인천(2006년), 울산(2007년)에 이어 국내 4번째로 설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조직구성과 함께 정부 추천 4명과 지자체 추천 3명 등 모두 7명의 항만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과 관련한 정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초대 사장을 선임하고, 오는 8월 1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을 놓고 지역세 축소를 우려하는 여수의 반발이 거셌다. 여수시의회는 2차례에 걸쳐 항만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190여명에 이르는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수 지역사회는 컨공단의 1조원에 이르는 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설립되면 여수와 광양 지역사회가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앞서 설립된 다른 지역 항만공사의 부채도 늘고 있다 등의 논리를 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박람회 홍보 '팜아트 모내기' 여수시 4-H연합회(회장 주천동) 회원들이 지난 5일 소리면 가사리 마을에서 '팜아트'(farm art) 모내기를 하고 있다. 회원들은 1만여 논에 일반벼와 붉은 색을 띠는 유색 벼 품종을 심어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홍보한다. <여수시 제공>

태백산맥박물관 응석벽화 기네스 도전

국내 최초·최대 자연석 벽화로 공식 인증
보성군 등재 신청 사전 절차 마무리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박물관' 응석벽화가 국내 최초·최대의 자연석 벽화로 공식 인증된다.

보성군은 "태백산맥박물관 '원형상-백두대간의 열원' 응석벽화가 오는 9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초, 최대의 자연석 응석벽화'로 공식 인증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태백산맥 문화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한국기록원과 약정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 최대의 자연석 응석벽화 한국기록에 도전했다.

한국 기록원은 지난 2개월여 동안 현황조사와 실측, 자료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국내 최대의 응석벽화로 기네스북 등재 신청의 사전 절차를 마쳤다.

군은 응석벽화의 기록자원을 통해 벽화를 보다 널리 홍보하고, 세계 속의 우수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 기네스북 등재를 위한 절차도 착수했다.

한편 태백산맥박물관 전시실 맞은편 응석에 설치돼 있는 응석벽화는 지리산과 백두산 등 백두대간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채취한 자연석 3만8700여 개를 사용해 제작한 높이 8m·폭 81m에 이르는 초대형 작품이다. 소설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와 문학관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김원, 이종상 화백이 공동으로 기획한 대작으로 제작 기간만 1년 8개월에 연인원 4850명이 투입됐

다.

한편 보성군은 한국기록원과 함께 기네스월드 레코드사에 제출할 증빙자료를 추가·보완하고, 번역 절차와 기네스월드 레코드사의 심의 과정을 통해 세계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성기자 kim0686@

곡성 기능성 참쌀 재배 농가 소득고

168ha 모내기 돌입

곡성군이 기능성 특수 참쌀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린다.

곡성군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참쌀품질 고급화 단지 168ha에 지난달 28일부터 모내기에 들어갔다.

군은 연초 상업농 육성 시책에 맞춰 차별화된 기능성 특수미를 생산해 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틈새품목중 하나인 참쌀을 재배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국립 종자원에서 순도 높은 참벼종자 7을 확보해 축곡면, 입면, 결면, 오산면 일대 공급하고 4개소에 참쌀 단지를 조성했다.

계약재배를 통해 여기서 생산된 참쌀은 농협과 유통업체에서 전량 수매하고 가격은 일반 시중가보다 높다.

곡성군 관계자는 "쌀소비 둔화로 쌀 농가가 침체돼 틈새품목을 공략하

는 것이 필요하다"며 "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쌀농사를 통해 상업농을 실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곡성 봉조 농촌체험마을

11일 '자연소리 음악회'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 농촌체험마을은 오는 11일 '제1회 자연소리 음악회'를 개최한다.

농어촌 희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풀피리 연주를 비롯해 해금과 아쟁, 오카리나 아상블 연주 등 다채로운 세계의 자연소리 음악이 소개된다.

1박2일 참가비는 3만6000원에 숙박이 제공된다. 문의(061-362-5268)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19일까지 천체사진전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개관 100일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지구의 밤' 천체사진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작품 20여점은 우주천문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별과 풍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지난 2월 28일 개관 이후 지금까지 1만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우주천문과학관은 '가정의 달'인 지난달에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 별자리 분야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프로그램 외에 여름방학 천문학교 개설, 전문 강좌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천문교육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전 북

새만금 산단에 캠퍼스 들어선다

산학 융합지구 조성... 군산대·현대중공업 등 40개 기관 참여 인력 양성

새만금 인근 산업단지에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캠퍼스가 들어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나선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대를 주축으로 전북도, 군산시, 군장대, 현대중공업 등 40개 기관이 참여한 '군산·새만금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기반시설 구축과 산학융합 촉진사업 등에 국비 270억 원을 비롯해 총 600억 원이 투입된다. 캠퍼스가 조성되면 군산대의 기계자동차공학과와

조선공학과, 제어로봇공학과, 군장대의 조선해양학과 등에서 550여 명이 수학하게 된다.

특히 산단 캠퍼스에는 이들 학과와 기업 연구소 100개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근로자 평생학습과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진학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학생에게는 R&D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중소기업에는 R&D 연구소 설립이나 산학융합 R&D 지원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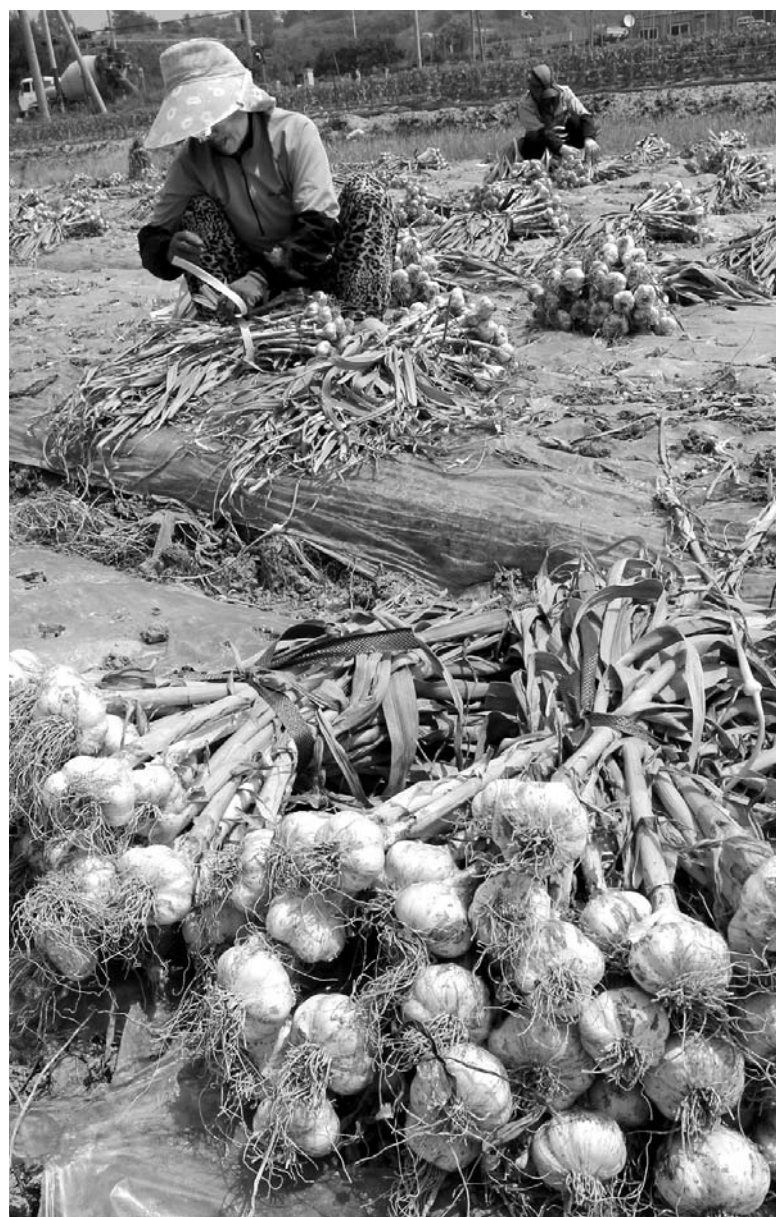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 기관을 주축으로 한 '새만금 녹색

융합 캠퍼스(가칭)'를 구성기로 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해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체계 구축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교육·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새만금융합지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군산·새만금 산단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읍들녘 육쪽마늘 수확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주민이 들녘에서 육쪽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 지자체 최초

시니어 창업스쿨 개강

전북도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창업스쿨' 교육에 나섰다.

전북도는 7일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2층 회의실에서 '제1기 시니어 창업스쿨' 개강식을 갖고 비즈니스형 위주 유통·물류 서비스(·소매)반 등 2개과정(60명) 교육을 시작했다.

주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교육(77시간)을 비롯해 유망업종 조사 분석 등 컨설팅, 자금지원(한계신용자금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장세대 실·퇴직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의 자원을 활용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인구의 15.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는 올해 172만명(추정) 등 퇴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 소외된 이웃 더 없나요?

도내 거주 A씨(56)는 어릴 적부터 동생과 함께 고아원을 전전하며 낱품 팔이로 생계를 이어왔다.

A씨는 재산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부 도움을 받을 법도 하지 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자체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일정한 거주지 없이 어릴 적부터 고기잡이배에서 생활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08년에서야 고창 친척집에 있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지만, 어업을 못하는 지금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타국에서 온 이주여성 B씨(26·임실군)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항상 밖에서 열쇠를 채우는 바람에 가정불화가 심각했다. 임실군 담당자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1차 방문했을

때 남편은 없고 대상자와 자녀 2명이 방에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상담을 못했고, 2차 방문시는 남편이 '가장 일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상담을 거부했다. 군은 조만간 경찰과 민간봉사자를 동원해 필요한 보호 범위를 상담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 결과 총 160건(180명)의 사례가 집계됐다.

중점 조사 대상은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무료 및 임시 보호시설 이용자와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사회적 보호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조사결과 남원시가 86건(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 18건(30명), 고창군 28건(30명), 김제시 7건(7명), 군산시 6건(6명), 정읍시 3건(4명), 임실군 2건(2명), 익산시 1건(1

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3명, 50대 30명, 40대 29명, 30대 12명, 20대 10명, 10대 7명, 10세 이하 3명 등 주로 노약자들이 많았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폐가와 창고·컨테이너가 각각 6건, 비닐하우스 5건, 쪽방과 여관, 교각 주변 각 2건, 공사장·공원 주변·철도주변 각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는 ▲생계 대책 49건 ▲의료 16건 ▲주거 14건 ▲일자리 5건 ▲시설입소 3건 ▲교육 2건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에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찾아내 보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시 '스쿨존 개선' 최우수기관 선정

전주시는 지난 3일 정부 종합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0년 전국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 '말하는 CCTV 사업'과 '세이프(Safe)-스쿨존 운동' 등이 탁월한 교통안전 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 광원농기계 비료살포기 2년연속 日 수출

김제지역 한 중소 농기계업체가 정보통신(IT)과 농기계를 접목한 비료살포기를 2년연속 일본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원농기계(대표 정경수)는 IT와 농기계를 접목한 비료 살포기를 지난해 100대(2억원 상당)를 일본 아리미즈사에 수출한데 이어 올해에도 1차분 20대(4000만원)를 7월 선적했다.

정경수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앞장선 결과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비료살포기는 작업 효율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성기자 hnews@

정읍시보건소 여름철 앞두고 방역 소득

정읍시보건소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득과 모기 유통 구제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모기 예방제가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인 유통단계에서 제거함으로써 성충에 대한 원천적 방제효과와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보건소는 9월까지 야간방역을 실시하는 등 모기 서식지와 복개전, 대형 정화조를 중심으로 친환경 유통 구제 방역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올 귀농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순창군은 올해 귀농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자는 34가구로 소득사업비, 빈집수리비, 이사비용에 1차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별로는 소득사업비 12건 등 총 40건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귀농자 지원 기준인 가구당 2인 이상으로 귀농한지 3년 이내의 가구중 전일 일자가 빠르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